

금호석유화학그룹

도전하는 인재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금호석유화학그룹은 글로벌 시장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재 발굴에 힘쓰고 있다. 정밀화학, 전자소재 등 업계 선도 제품으로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직원들에게 '전문성'과 '리더십' 함양은 매우 중요하다. 직원들이 자기 계발을 통해 본인은 물론 회사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교육과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5월 23일 금호석유화학은 서울 본사에서 노사 임단협 조인식을 하고 올해 임금 협의를 마쳤다. 1사 3노조 체제에서 32년 무분규 협약이라는 기록을 이어가게 된 노사는 악화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더욱 적극적인 경영을 펼치도록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전문가 육성을 위해 2010년부터 직무 자격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국가공인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장려하는 제도로 응시료, 학원비, 도서비 등을 지원한다. 최근에는 미국 공인회계사, 재무리스크관리사, 공인재무분석사, 생산 재고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지원했다.

또 공인 자격증 취득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사내 강사양성제도'도 운영 중이다. 14개 핵심 직무에서 5년 이상 경험을 가진 임직원을 사내 강사로 양성한다. 현업에서 형성된 노하우를 회사의 지식으로 축적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4년 36명을 선발한 이후 지속



해서 운영 중이며 사내 강사양성을 통해 개인의 성취도와 직원 간 소통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룹은 또 임원들의 경영능력 향상과 대외 인적교류 강화 차원에서 매년 경영대학원의 최고경영자과정 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인재의 덕목은 '리더십'과 '자기개발'이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시작된 WINK 특강은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경영기법과 국내외 주요 화제를 다루고 있다.

금호석유화학그룹 직원들은 연간 6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어학과 직무 관련 모든 교육은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다. 또

독자적으로 개설해 운영해 온 사이버 교육평가시스템 'WINK-ACADEMY'를 발전시켜 더욱 풍부한 교육 콘텐츠와 이벤트를 제공 중이다.

수강 임직원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목표 미달성 시 일정 수강료를 수강생이 부담한다. 부담금은 연말에 해당 직원 명의로 복지시설 등에 기부한다. 이밖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상사나 동료들에게 선물하는 '북릴레이'는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협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

